



《丙午新程(병오신정)》

도덕경으로 맞이하는 병오년

한시·글 윤호 이진호 / 서예 송원 전재원



해가 바뀌는 시점에는 숫자보다 먼저 사회적 공기가 달라진다.
달력 위의 연도가 바뀌기 전부터
연말의 흥청거림과 아쉬움,
그리고 희망과 새로운 결심이
이미 다가올 다음 해를 향해 뒤섞여 있다.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품은 ‘붉은 말’의 해다.
‘붉은 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꿈틀대는 에너지와 속도가 연상되고,
조용한 머뭇보다는 격렬한 움직임이 먼저 떠오른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고,
뒤처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재촉한다.
이럴 때 문득, 속도와 방향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 질문 앞에서 『도덕경』을 다시 펼쳤다.
짧은 문장이지만 읽을 때마다 결이 달라 보이는 대목이다.

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聖人 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 노자 《도덕경》 제7장

하늘과 땅은 오래 이어진다.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다.
노자는 이 사실을
교훈처럼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이 오래 지속되는 방식을 담담하게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사람의 태도로 옮겨 놓는다.
앞서지 않으려 하기에 결과적으로 앞서게 되고,
자신을 밖으로 내두기에 오히려 자리가 남는다는 이야기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만든 것은
송원 전재원 선생의 전서체 『도덕경』 작품이었다.
선생은 동해의 아침해를 새해에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
강원도 강릉에서 활동하는 서예가다.
가장 이른 빛이 닿는 자리에서
가장 오래된 서체를 써 내려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장면이 된다.
선생의 작품 속 전서는 획이 둥글고 닫혀 있으며
속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강조도 없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서는 언제나 조용한 글씨로 남는다.
그 성격을 알고 작품을 바라보면 글씨는 말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앞서 나서지 않고,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그저 오래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노자가 말한 성인의 태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려 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앞서게 되고,
사사로움을 앞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문장,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있다.
사사로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사로움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남는다는 뜻이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 생각을 정리하며 한 편의 칠언절구를 지어 보았다.

天長地久啓新程 (천장지구계신정)
丙火驅蹄萬象生 (병화구제만상생)
後已無爲開大道 (후기무위개대도)
不爭而進勢恒榮 (부쟁이진세항영)



하늘과 땅이 오래 이어지며
그 위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병오년의 불기운은
말발굽을 재촉해 만 가지 변화를 일으킨다.
자기 자신을 뒤로 두고 억지로 하지 않으니
대도가 열리고,
다투지 않으니
발전하는 기세가 끝없이 이어진다.

이 정도의 해석이면 충분하다.
더 보태지 않아도 도덕경의 구조와 전서가 가진 태도는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다.
전서체는 지금을 당장 설명하려 들지 않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저 오래 견딜 수 있는 형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뿐이다.
병오년 또한 속도만으로 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달리는 기세와 그 기세를 굳이 앞세우지 않는 태도가
같은 시간 안에 놓여 있다.
붉은 말의 해를 앞두고 나는 새해를 다짐하기보다
이 오래된 문장과 가장 느린 글씨를 잠시 함께 바라본다.
그것으로 지금의 걸음이 어떤 결 위에 놓여 있는지
조용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다. 

한시·글 운호 이진호(雲湖 李進浩)

- KBS 남산송신소 근무 중
- KBS 사군자회 회원
- 서예/문인화 교육강사 1급

서예 송원 전재원(松源 全在媛)

- 문화예술학(문자조형) 박사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국서련 한국본부 전국회화대회 초대작가
- 강원미술협회 서예부문 초대작가
- 동방대 서예 문인화 과정 12기 수료
- 서예/문인화 교육 강사 1급